

책읽기의 운명에 사로잡힌 인물들

세계적인 독서가들을 찾아서

역사 속 독서가들은 많은 일화를 남겼다. 책을 너무 읽어 눈이 멀게 된 보르헤스, 지붕 없는 곳에서는 책을 읽을 수 없었던 마그리트 뒤라스와, 식당에서 책읽기를 즐겼다는 프루스트, 책읽기의 가치를 고통 속에서 찾고 이를 즐겨 웅변했던 카프카, 자기의 삶은 책으로 시작해 책으로 끝났다고 고백한 사르트르 등 세계적인 독서가의 에피소드는 우리의 경탄을 자아낸다.

“프루스트는 다른 가족들이 아침 산책에 나서기만 하면 곧바로 살금살금 식당으로 들어가곤 했다.”

《독서의 역사》(알베르토 망구엘, 정명진, 세종서적)에 묘사된 프루스트는 책을 읽으면서 식당의 달력, 유리컵 등이 뿔어내는 고요함을 즐겼다.

백인백색의 독서습관 흥미진진해

헨리 밀러는 특별히 음미해야 할 문장만을 따로 뽑아 화장실에서 곱씹는 버릇이 있었다. 마그리트 뒤라스는 열린 하늘 밑에서 책을 읽지 않았다. “햇빛과 책이 뿔어내는 빛을 한꺼번에 받으면서” 책을 읽어낼 자신이 없었기 때문이다. 영국의 낭만파 시인 셸리는 옷을 훌렁 벗은 채 바위에 걸터앉아 땀이 다 식을 때까지 헤로도토스를 읽곤 했다.

영문학 부흥기의 비평가 사무엘 존슨은 탐욕스러운 아귀처럼 책을 먹어치웠다. “한가지 오락을 끝내는 시점에 또 다른 오락거리를 늘 준비해 두려는 욕구에서, 저녁식사 시간에도 책을 식탁보로 덮어 무릎 위에 올려놓고 있었다”고 전한다. 에디슨의 독서의욕은 과격하고 미련할 정도였는데, 그는 열두살 때 “책꽂이의 가장 밑에 있던 책부터 시작해” 디트로이트 도서관을 통째로 읽어나갔다. 빅토리아 시대의 탐험가 아문센은 남극탐험 길에 얼음장 밑에 책보따리를 빠뜨리고는 존 고든의 《고독과 고통에 빠진 폐하의 초상화》를 되풀이 읽으며 외로움을 이겨냈다고 한다. 세르반테스는 길거리에 나뒹구는 종이 조각까지 읽을 만큼 독서광이었다. 세계에서 책을 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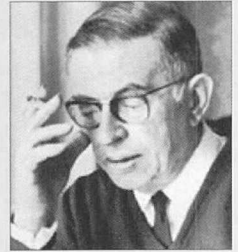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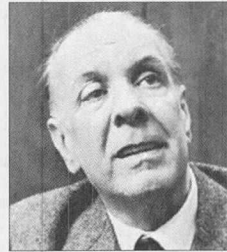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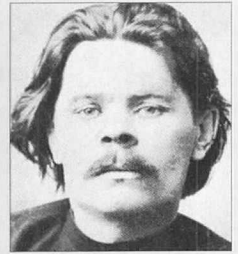
읽기로 악명 높은 그의 고국 스페인 사람들은 그래서 세르반테스를 무척이나 존경한다.

독서가가 권력을 잡았던 경우는 그 광경이 정말 볼 만했다. 독서를 통해 열등감을 떨치고 세계를 제패할 지식을 얻었던 나폴레옹이, 이집트 원정 때 마차에 책 1천여권을 싣고 갔다는 일화는 유명하다. 그는 심지어 말을 타고 이동하면서도 책을 보고, 다 보면 말 뒤로 던져버리는 이상한 버릇이 있었다고 전한다. 10세기 페르시아의 총리 이스마엘은 먼 곳으로 여행할 때면, 11만권이 넘는 장서를 낙타 4백여 마리에 나눠 싣고 이들이 책 제목 순으로 이뤄진 대열에서 흐트러지지 않게 특수 훈련을 시켰다.

가난한 청년 고리키의 독서열

10세기 전까지 책을 읽는다는 것은 크게 토박또박 소리내어 읽는 것을 뜻했다. 그런데 아우구스티누스 시대에 사회적으로 명망 높던 암브로시우스는 군중에게 연설할 때는 크게 떠들었지만, 책을 볼 때는 미동도 없이 뚫어지게 책장을 쳐다보는 것으로 유명했다. 카프카는 고통스럽게 책을 읽었다. 그는 1904년 친구 오스카르 폴라크에게 보낸 편지에서 “우리를 마구 물어뜯고 찢어대는 책, 사랑하는 이의 죽음 앞에서처럼 더없이 고통스러운 불운으로 와닿는 책”만이 읽어볼 만하다고 말했다.

니나 구르펜켈이 쓴 《고리키》(홍성광, 한길사)에서, 고리키는 독서욕에 불타오르는 가난한 청년으로 묘사된다. 초를 살 돈이 없어 촛대의



독서가들의 일화에서 우리는 천변만화하는 인간의 내면풍경을 읽을 수 있다. 사진은 위에서 시계방향으로 셸리, 고리키, 사르트르, 보르헤스.

밀랍을 모아 정어리 통조림 깡통에 넣고 노끈으로 심지를 만들어 불을 밝히며 책을 읽었다. 기선 작업장에서 노동자로 일했던 그는 책에 나오는 여러 이야기를 동료들에게 들려줘, 이야기꾼과 낭독자라는 특별한 지위를 얻었다.

사르트르는 자신이 “회대의 분석적 정신의 소유자가 될 수 있었던 것과 카뮈와는 반대로 자연의 광채와 숙명의 무게를 모르고 지낸 것”이 책으로 시작해 책으로 끝난 책벌레 인생이었기 때문이라고 고백했다. 사르트르는 책읽기를 통해 “카프카적인 해체를 헤겔적으로 종합하는 특유의 철학스타일”을 마련했다. 발터 벤야민은 두세 개 선반으로 이뤄진 서재로 자신의 책수집을 시작했다. 10년 동안 이 선반은 매년 몇 센티미터씩만 커졌다. 한번이라도 읽은 책 말고는 꽃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벤야민은 경매나 주문을 통해 책을 구입했는데, 이때 그는 그 책에 대한 일반적인 평가뿐 아니라, 출판년도, 장소, 크기, 전 소유주, 장정 등을 꼼꼼히 살폈다.

책을 너무 읽어 눈이 멀어버린 경우도 있다. 보르헤스는 부에노스아이레스 국립도서관에서 일하던 30세 무렵에 이미 시력을 잃었다. 알베르토 망구엘은 자신이 서점직원이었을 당시 보르헤스에게 책을 읽어줬던 적이 있다고 회상했다. 보르헤스의 집을 방문한 망구엘이 소파에 앉아서 큰 소리로 책을 읽으면 보르헤스는 종종 읽기를 가로막고 문장을 논평하거나, 작가의 생각이 우스꽝스러울 땐 그 내용을 즉석으로 패러디해서 뭉개버렸다고 전한다. — 강성민 기자